

179컬레 신발·1229개 리본...공항 가득 추모 메시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법

매칠 쉬고 오겠다면 가족을 마중한 공항에서 맞은 두 번째 겨울이다. 유가족들은 변변한 인사도 없이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다. 지상에 내리지 못한 그리운 이들을 기억하려는 몸짓은 그래서 더 간절하다.

지난 24일 찾은 무안국제공항 1층 입구에는 추모작 '캐리어 179: 못다 한 여행의 기록'이라는 작품이 참사 희생자들을 마중하고 있다.

게이트부터 길게 이어진 179컬레의 주인 잃은 신발들은 여행 가방(캐리어)을 향해 줄지어 놓여있고 179명의 여행가방은 5m 높이의 탑으로 세워져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방은 푸른색 끈으로 서로 묶여있었다. 서로를 지탱하는 연대의 힘이자, 떠난 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마음으로 잇겠다는 '기억의 약속'이라는 의미다.

서은선 작가는 "못다 한 그들의 여행이 하늘에서 편안히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남아 멈춰버린 179명의 시간을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공항 한 편에 놓인 테이블에서 파란 리본 배지·열쇠고리를 만드는 봉사자들은 여전히 공항에서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파란 리본과 친환경 가방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 시민이 하늘색 가족으로 만들어 유족 측에 전달한 추모 리본도 공항을 찾은 추모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공항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난간에 가슴에 묻은 딸, 아들, 그리운 엄마, 아빠, 형제 등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추모 메시지로 가득하다.

곁에 있을 때 더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 행복했던 추

지상 내리지 못한 그리운 이들

기억하려는 간절한 몸짓

시집 '보고 싶다는 말'도 펴내

억, 기억하며 잘 살아내겠다는 굳은 다짐의 글들이다.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 보겠다',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주신 사랑 덕분이다', '하나뿐인 내 동생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평생 친구 해달라던 너는 정말로 내 평생 친구-내가 널 오래 기억할게', '우리 다시 만나면 밀린 이야기 밤새 하자' '너 없는 일상이 믿기지 않는다'는 메모를 접하며 눈물을 흘리는 방문객들도 보였다. 공항 주변 철조망도 추모 메시지로 가득하다.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책도 나왔다.

한국작가회의 시분과위원회 주도로 만든 시집 '보고 싶다는 말'은 전국 시인과 유족 등 40명의 애도의 목소리가 담겼다.

권현형 시인은 자신의 시 '잘린 필름, 잘린 사람'을 통해 "새 떼처럼 표류하는 책임들을 정밀히 추적하고 밝혀야 한다"고 썼다. '그날, 폭발음이 있었다'라는 시를 쓴 이명윤 시인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가슴 속에 지옥이 살고 눈물이 살며 사막이 살았다/.../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되어 해마다 잊지 않고 세상의 창가에 피어나기를/ 더 이상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를"이라고 썼다.

또 박연준 시인은 "떠난 자의 안부를 알 길이 없고, 남은 자의 슬픔을 다 헤아릴 수 없을 테지만...소용없겠지만. 없을지라도. 마음을 기울이겠다"고 위로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나흘 앞둔 25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이 참사의 현장인 활주로가 내려다보이는 외곽 펜스 앞에 서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9일 오전 9시 3분, 광주·전남에 '추모의 사이렌'

27일 광주 5·18광장서 추모대회

29일 무안공항서 공식 추모식

오는 29일 오전 9시 3분, 광주시와 전남도 전역에 1분간 묵직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

1년 전 그 시각,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벌어진 17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추모의 울림'이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진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대신, 지역사회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가 열린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참사가 남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어 28일 오후 1시에는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추

모의 밤' 행사가 열려 종교 의식과 합동 제사를 통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한다.

참사 당일인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 2층 터미널에서 정부 주관으로 1주기 공식 추모식이 거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 유가족, 사고 수습에 힘썼던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본행사는 회화를 시작으로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낭독,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연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식전 행사인 오전 9시 3분에는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참석자가 묵념하며 그날의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추모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29일까지 광주송정역, 전남도청 1층, 광주 동구 전일빌딩 등 주요 거점에 '디지털 분향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전자 방명록에 추모 메시지를 남기거나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과 영상을 보며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유휴직' 제도 도입...신체·정신적 피해 근로자 최대 6개월 휴직

김민석 위원장 '지원·추모위' 출범

추모공원·기념관 건립 추진

12·29여객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회의 몫이라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사를 영원히 기억하는 일은 정부 주도의 '지원·추모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에 근거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추모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모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 등 구체적인 추모사업 추진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치유휴직' 제도의 도입이다.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참사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사업주에게 고

용유지비용을 지원해 피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도 확정됐다. 상법상 보험 가입이 제한적인 미성년 희생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 수준 등을 참작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의료지원금과 심리치료비용 지원,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 법률상담 지원 계획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과 공공기관 지원사단법인 선정 안건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수렴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수요자인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펼치겠

다는 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 보상을 넘어 '기억과 치유'에도 방점을 찍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 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해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참사 여파로 침체된 광주시와 전남도 등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 총리는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1년
[1954 ~ 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5. 12. 29.(월) ~ 31(수)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1
	한국어교육학과	1
	복지상담융합학부	18
사 범	유아교육과	8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58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국가)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민간)심리상담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5. 12. 29(월) ~ 31(수) · 전 형 일: 2026. 1. 9(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